문제해결 대신 세상 자체를 교체하자

(사사기 6:25~40)

25. 그 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칠 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26.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문제해결 대신 세상 자체를 교체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문제해결 대신 세상 자체를 교체하자'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11년 된 폭스바겐의 파사트 중고차를 구해서 탔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10년 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자동차의 왕국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차이기 때문에 하루 건너서 이상이 생깁니다. 많은 부분을 제가 직접 고치는데 부품을 갈아야 할 때에는 새 부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폐차장을 가면 광활한 대지 위에 차들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그 중에서 같은 차종을 찾아서 새 부품 값의 1/10 값도 되지 않는 것을 가져와서 직접 갈아서 타고 다녔습니다. 소모품이 아닌 한 고장이 났을 때에 새 부품을 사서 갈아 끼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 부품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돈 문제보다도 자동차는 2만 가지가 넘는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품만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부품 하나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차가 새 차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 차는 한 번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고장이 나는데 보통 3년을 타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대신에 아예 새 차로 교체를 합니다. 3년마다 차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요. 저는 아직까지도 새 차로 교체하는 것은 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히는 삶을 삽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면서, 자동차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을 교체하면서

삽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발생하여 마음에 걸릴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 신경 쓰지 않고 그 때마다 세상을 교체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바꾼다, 좋은 세상으로 개선시킨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세상 자체를 교체해서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구약성경의 선민들에게서부터 예표적으로 나타나던 일이었습니다. 선민이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알 수도 들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상황으로 개선시킨다.'는 의미에서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예 '세상을 통째로 교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도대체 세상을 교체한다니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지요?
우리 가정과 살고 있는 집과 밖에 있는 나무는 어제도 그대로 그제도 그대로 내일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내가 보는 산도 그대로 바다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한강도 그대로 흘러갈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존의 사물들과 기존의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교체할 수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문제의식을 느낄 때마다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게 하는 세상을 교체해버리는 것인데, 지금 내가 문제로 생각하는 것을 다른 세상으로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기존의 세상 내에서 문제로 느끼는 내가 지금 적응되어 있는 것인데, 그 세상을 바꿔버리면 똑같은 문제로 여겼던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내가 마음으로 적응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재정적인 상황이 문제로 느껴져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면, 인생에서 재정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마치 11년 된 자동차에 2만개의 부품이 문제로 드러나기 위해서 줄 서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한 가지 부품을 갈아도 남아있는 19,999개의 부품 중에 어느 것이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므로 '차를 완전히 교체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해도 내일과 모레를 살 때에, 또 다시 재정문제가 나타나므로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재정상태가 좋든 안 좋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이, 그런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하실 텐데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선민의 세상을 제외하고서라도 다 제각기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위주로 세상을 재편해서 살아가고, 아내는 가정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해서 살고 있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세상을 교체하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기드온이 세상을 교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부르신 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25~26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칠 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칠 년 된 둘째 수소'는 미디안의 압제에 노략과 약탈을 당한 7년 기간과 맞물리는 세월동안 자란 소인데 그 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바알 제단은 헐어버리고 아세라 여신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자 기드온이 마을 사람들 몰래 행합니다. 아마 기드온의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있었던 것 같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오브라 성의 주인으로, 아비에셀 가문 므낫세 사람들이 성읍민이 되어서 살고 있는 성읍의 대표자로,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관리했던 모양입니다.
27절에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고 합니다.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는 말은 기드온이 한 행위가 사람들 눈에 띄면 가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을 내놔라 죽이겠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면 끌어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땔감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선민들이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영적 상황이 역전이 되었을까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왜 칠 년 된 수소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을 교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인데, 뭘 하나 세워놓고 '이게 바로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사람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신인데, 그 대상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예우, 신을 대할 때 인간의 마음가짐은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들여놓고 좋아하는 것이 내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들여놓게 되는데, 그 신의 자리에 자식이 들어오면 자식이 신이 되고,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이 신이 되고 돈이 들어오면 돈이 신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첫 번째로 마음에 자리 잡은 신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도,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풍요와 다산이 남아있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의 의미는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입니

다.
‘칠 년 된 수소를 죽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칠 년 동안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풍요와 다산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인데 그 세상에 적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중에 미디안이 파종할 때나 수확할 때 쳐들어와서 농사의 수확물들을 다 약탈해가고 낙타의 먹이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는데 풍요와 다산은커녕 궁핍의 궁극을 달리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교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별명이 ‘바알에게 반항한다.’는 뜻의 ‘여룹바알’이 되는 것처럼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신 풍요와 다산에게 반항하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이 내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신념과 저항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념체계에 의해서 그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신념체계와 상식과 어떻게 바꾸고 싸워야 합니까? 그 동안 나도 돈이 없으면 걱정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면서 그 세상에 적응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칠 년 지배했던 기간에 자랐던 칠 년 된 둘째 수소를 제사로 바치는 것을 통하여, 칠 년 동안 풍요와 다산을 첫 번째 신으로 섬기는 세상 속에 적응되어 살았던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마음의 첫 번째 자리가 빈 채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첫 번째 자리로 붙잡을 때에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자가 어려서는 아버지 집에서 자라다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그 남자가 첫 번째 자리가 되고, 그 여자의 세상은 남자를 통해 보이는 다른 세상으로 교체되어 버립니다.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음악에 눈을 뜨면 음악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VR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상현실기기를 착용하게 되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좋아하는 대상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남아있는 한, 2만 개의 11년 된 자동차 부품이 차례로 문제를 일으킬 것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문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유의 상황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다른 세상으로 바꾸기 전에는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데, 제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제사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지금 내가 직장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입사동기생인 동료가 승진을 하는데 나는 누락이 되어서 마음이 죽겠습니다. 이 회사라는 세상 안에서는 승진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있는 한 입사동기가 먼저 승진하는 상황에서, 괴로워서 나도 승

진하기 위해 전무님을 찾아가고, 설이 되면 과일을 보내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지 마세요.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이사에서 전무로 승진해서 결국엔 사장이 됐더라도 언제 잘릴까 걱정을 하는데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진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진이 문제가 되는 세상에 적응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입사 동기는 승진해도 나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옆의 이웃집 아저씨가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많이 벌어야 잘 사는 신념체계로 살고 있는 세상에 적응된 나는 죽는 것입니다. 적응되었기 때문에 샘이 나는 것이고, 적응되었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면 걱정됩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십자가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첫 번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붙잡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때에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알면 맞아 죽을까 몰래 자기 종들을 데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르엘 골짜기에 모래알처럼 많이 모여서 진을 치던 상황에서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첫 번째 좋아하는 자리에 모셔 들이자,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마음에 와 부딪히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나니 미디안이 모래알처럼 모이든 말든 문제가 되질 않고, 곡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질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36~40절에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번이나 확증을 요구합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괘씸할 정도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 마디도 나무라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가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새 차를 사서 운전석에 앉으면 어색하지만 적응하면 좋은 것과 같습니다. 전설 속에서 들렸던 것과 같은 하나님, 단지 이야기 속에 갇혀계시던 하나님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셔서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치게 된다.”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는 기드온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고, 아예 문제가 없는 세상이 어떻

게 존재할 수 있는지 한 번 경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문제의식과 더불어 내 마음에 걸리는 세상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식이 되고 내 마음의 관심사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그 상태에 대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 마음을 끌고 하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첫 번째로 붙잡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이야기 속의 하나님으로 갇혀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른 이름이 걸린 상태에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 다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첫 번째로 붙잡혀 있는 그 심령을 끌어 올려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마5:8절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느끼게 되면, 이 세상에서 문제를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세상으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문제의식에 끌려갈 때마다 세상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3년마다 자동차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매일매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음으로 세상 자체를 교체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자동차도 아니고 연필도 아니고 볼펜도 아닌데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세상이 그리 쉽게 교체된다니,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상으로 교체하며 살아가는 지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